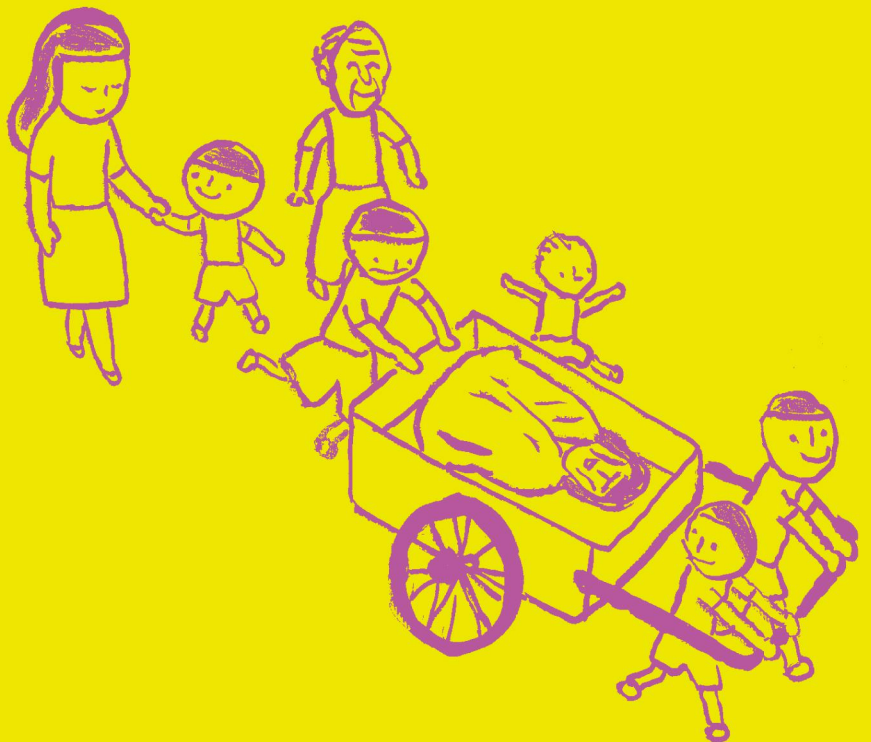




애들아, 이리와 봐!



♥ 이 책을 한 장씩 떼어 학교나 도서관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어 봐.

난 예수님.

나는 하느님.

나, 공주!



난 순스케~.



에고, 나는 뽀리굴뚝.



나는 유코~.



내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탐이 아주머니라고 불러.



나는 용구 삼촌.



멍멍, 나는 로쿠베.



나는
종지기 아저씨란다.



나는 뽀뽀끼.



안녕! 나는 고다니 쌤이야.

나는 마달이~.



난 또야~.



나랑 놀자구~.



싫다구!

난 이나코~
우리는 같은 반 친구들~.



나는 해룡이란단.



사람들이 나를
몽실 언니라고 해.



나는 강아지똥.



후짱이야.



나는 데쓰조야.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 준 사람은, 바로 이 아저씨들이야.



이오덕(1925-2003)

아저씨는 학교 선생님이었어. 아이들과 글쓰기를 했고 우리나라 어린이문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분이야. 나중에는 우리 말 우리 글을 바르게 쓰는 데 앞장섰어.



권정생(1937-2007)

아저씨는 빌뱅이 언덕 흙집에서 뽕떡이라는 개와 함께 살며 동화를 썼어. 《강아지 똥》과 《몽실 언니》, 《사과나무 밑 달님》을 쓴 아이들의 동무야.



하이타니(1934-2006)

아저씨는 학교 선생님이었고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와 《태양의 아이》를 썼어. 아저씨 이야기는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많이 읽혔대.

제비 지와 6 남경삼
 새가만 제비의 날개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나는
 제비의 날개
 아, 높이도 뻗었구나.

죽고 싶은 나의 마음
 지와 6 남경삼

아, 죽고 싶은 마음
 공부도 못 하고
 중학교는 못 들겠고
 집에 있으면
 꾸중만 들을 게고
 아, 얼른 땅 속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나.



이오덕 아저씨는 42년 동안 시골 학교 교사로 아이들과 지냈어. 아이들하고 함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지. 그때는 아이들이 소도 먹이고 밭에 풀도 매면서 일을 했어.
 그래서 일하는 이야기를 많이 썼어. 남경삼 어린이는 지금 어른이 되었겠지?



〈이재흠 어린이 그림〉

눈이 오는 달밤이야. 한참 동안 앞산을 바라봤나 봐. 하던 걸 멈추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보이던 게 보여. 꼬물꼬물 마음속에서 이야기가 살아나. 그것이 시가 되고 그림이 돼. 이오덕 아저씨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라고 했어.

일본의 도쿄 북서쪽 90km에 위치한 군마현 다카사키시 음악당의 바깥에는 일본 보인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놓고간 듯한 대형콘트라베이스가 하나 서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카사키시의 전화회사가 통신 공중전화박스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의 3배나 되는 4백만엔을 들여 세운 전화무스라고.

(토요일로 90.7.18 사진촬영)

- * 위치란 → 있는
- * 통상 → 보통
- * 도입되는 → 들어가게

地 平 線
상대적인 사
실의 존재가
존재하는 것
을 말한다. 이
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
이다. 이 책은
이것이 무엇인
지를 설명한다.

- * 등 → 등
- * 발생한다 → 생겨난다.
- * 외부압력에 의해서 → 외부
이 때문이다.
- * 취지아래 → 취지로.

첫째 유형은 계보이탈자에 대한 비주류의 분열적 성격으로 김모 씨(관악)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김씨는 과거 이철승씨 계보의 핵심인물이었으나 신당창당과 관련, YS진영에도 가담한 데 대한 청년당원들의 분열이 폭력으로 행사된 경우이다. 둘째는 일종의 인간적 배신행위에 대한 음침의 성격으로 김모 씨(구미)의 경우가 그 한 예다. 김씨는 그간 '이택희파'로서 분류

돼 왔으나 신당창당을 계기로 의리를 배신했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그에 대한 보복성격의 사건이라 보여진다.

세째는 정치인 자질문제로서 실덕자(失德者)에 대한 추방적 성격이 강한 케이스다. 군산의 김모 씨가 그 대표적인 예로 그는 간통 혐의를 쓰고 있었다. 그같은 인물 을 반대파 당원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일은 이해가 가는 처사다.

그렇다면 「청담방해사건」으로 인격이지는 폭력사태가 외부의 힘이 아닌, 내부적인 요소에 의해 일어났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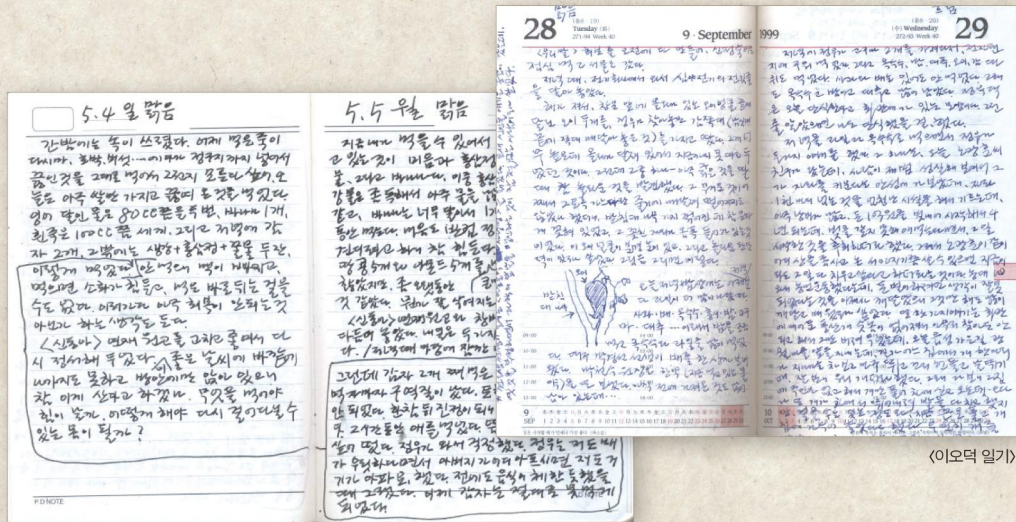
▲ 꼭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 다른 방향에서 이해되고 어느 특정세력의 일방적인 계산으로 이용돼선 안되겠다는 주장에서 한 말이다. YS의 DJ에 대한 선명성 콤플렉스가 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같은 당이면서 DJ는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사가 두 사람의 문장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꼭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앞 그 자체가 문제되지 않. 아무래도 기사를 쓴 사람이 말을 쓴 것으로 정리해 쓴 것이라 볼 수 있다.

← 토요일로 90.7.18 미팅기시 '용담' 이 협의'는 'YS의 보복작전' 여종에 나온 글.

- * 분열이적 → 분열이
- * 김모 → 김 아무개
- * 대표적인 케이스 → 대표가 될 만한 사진
- * 마거 → 지난날
- * 인간적 배신행위에 대한 음침의 → 인간의 배신행위를 끌어주는
- * 예 → 보기
- * '이택희파'로서 → '이택희파'로
- * 보여진다 → 보인다.
- * 실덕자에 대한 추방적 성격이 강한 케이스다 → 억울 함은 사람 을 추방하는 뜻이 강한 경우다.
- * 대표적인 예로 → 대표가 될 만한 예로
- * 인용 → 우선. 일단.
- * 일컬어지는 → (이라) 일컫는. (이라) 말하느.
- * 내부적 원인에 의해 → 내부의 요소로. 내부의 ~~원인~~ 요소 때문이.
- * 일률적으로 → 한기탕같은
- * 일방적인 → (특정세력) 한쪽만의
- * YS의 DJ에 대한 → 김영삼이 김대 중을 대하는
- * 요인 → 중요원인

어려운 말로는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마음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써야 진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해. 그래서 이오덕 아저씨는 우리 말과 글을 바르고 쉽게 살려 쓰는 데 큰일을 했어.



이오덕 아저씨가 42년 동안 쓴 일기장이야. 모두 아흔여덟 권, 원고지로 3만 7,986장.

아저씨는 거의 날마다 일기를 썼어. 하루하루 깨어서 살고, 하루를 되돌아보며

일기를 쓰고, 이것이 아저씨의 글과 작품에 바탕이 되었어.



《강아지 똥》

권정생 아저씨는 결핵에 걸려 평생 아프게 살아서 늘 미안하다고 했어. 스스로를 강아지 똥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 하지만 강아지 똥은 민들레꽃으로 다시 살아나. 아저씨도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로 살아나서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을 거야.



해룡이, 빠리골댁 할머니, 탑이 아주머니, 용구 삼촌, 빼빼기.

모두 여리고 약한 목숨들이야.

권정생 아저씨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생명들이지.

아저씨 동화는 슬프지만

약한 생명들끼리 서로 기대어 사는 따뜻함이 있어.



《사과나무 밭 달님》
《용구 삼촌》



《황소 아버지》

권정생 아버씨는 가난하게 살았어. 하늘하고 바람 말고는 내 것이라고 가질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지. 책을 써서 번 돈은 모두 아이들을 위해 써 달라고 했어. 추운 겨울, 황소 아버씨가 생쥐에게 여물통을 내준 것처럼 그렇게 다 주고 가셨어.



《엄마 까투리》

온 산에 불이 붙었어. 엄마 까투리는 새끼 뽕들을 두고 날아갈 수가 없었어.

아저씨 어머니는 아픈 아저씨를 살리려고 산으로 들로 약초를 캐러 다녔대.

아저씨는 살아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아저씨는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엄마 까투리’를 썼대.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로쿠베를 구하려고 아이들이 뭉쳤어. 로쿠베를 걱정하고 응원하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하이타니 아저씨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상냥함’을 본 거지. 다른 사람을 내 안에서 살고 있게 하는 것이 아저씨가 말하는 ‘상냥함’이야.



《우리 집 가솔쟁이》

마사토는 특하면 가솔하는 하이타니 아저씨네 반 아이야. 아저씨는 교사 시절에 만난
아이들 이야기를 동화로 썼어. 엄마가 없는 아이, 약하고 여린 아이, 엉뚱한 아이들
이야기야.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이기도 해.



선생님

나

이제 선생님이 싫다

나

오늘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화났다

나

내 짹꿍한테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었다

나

댄 데 보고 있지 않았었다

선생님이라도 무릎 꿇고 사과해

“신지, 용서해 주!”

하고 사과해



《선생님 내 부하 해》

하이타니 아저씨도 아이들하고 글쓰기를 했어. 어른들 잔소리 때문에, 시험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한 친구들에게 글쓰기 갯단이 되자고 했어. 자기 생각을 눈곱만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위엄 있는 진짜 갯단이 될 수 있대.





《태양의 아이》

오키나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전쟁으로 죽기도 했지만 일본 천황이
집단 자결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야.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 내.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슬프지만 따뜻하고 상냥해.

아저씨는 평생 오키나와의 슬픔과 상냥함을 품고 살았어.

이오덕·권정생·하이타니 아저씨는 평생 아이들의 동무로 아이들 곁에 있었어.

아저씨들 이야기가 더 궁금해?

아저씨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



첫 번째 방법, 서울도서관으로 놀러 온다.

오는 5월 6일(수)부터 5월 31일(일)까지 서울도서관 1층 전시실과 계단, 4층 로비에서 세 분의 특별전시회를 하거든. 전시회에 오면 아저씨들의 살아온 이야기, 문학과 책 이야기, 친필 원고와 유품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아, 주의 사항. 서울도서관은 월요일마다 쉬니까 월요일은 오면 안 돼. 그리고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전시를 볼 수 있어. 꼭 기억해!!

두 번째 방법, 강연을 듣는다.

5월 6일, 13일, 20일, 이렇게 수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오덕·권정생·하이타니 겐지로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주제로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에서 강연을 해. 어른, 아이 모두 들을 수 있어. 다만, 미리 신청을 해야 돼.

신청 방법은 서울도서관(<http://lib.seoul.go.kr>)이나

어린이도서관연구회(<http://www.childbook.org>)로 하거나 전화(02-3672-4447)로 하면 돼.



세 번째 방법, “이오덕·권정생·하이타니 겐지로 이야기 마당”에 참석한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4층 강당에서 해. 그런데 여기도 미리 참가 신청을 해야 돼. 신청 방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lcy.go.kr>)나 전화(02-3413-4773)로 예약하면 돼.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거나 너무 멀어서 못 오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책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아저씨들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아저씨들의 삶에서 나왔기 때문에 책이 곧 아저씨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 아저씨들이 꿈꾸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봐~~. 안녕!

